

한약(보약) 적정가격 논쟁

소비자보호원 폭리 주장에 한의계 반발

한방의료기관들이 한약재 증금속 파동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이번엔 「한약(보약) 폭리」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9월 22일 발표한 「한약(보약) 가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의원의 보약 한제당 소비자 가격은 재료비 원가대비 최저 2.4배에서 최고 6.6배에 달했으며 대학부속한방병원은 약 11.5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소보원의 이같은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대한한약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소비자가 주문한 것과 다르게 하품의 약재가 사용된 것은 분명 잘못이다』면서도 『그러나 한방의료기관이란 특성을 무시하고 약값을 마치 공산품처럼 단순원가와 비교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보원의 조사·발표내용과 한의협·한방병원협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 소보원 실태조사 결과

97년 1월부터 98년 7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한약(보약포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2백 24건에 이른다.

이중 부작용 발생이 57건 (25.4%) 이었고, 가격 및 품질 진위확인 요구가 49건 (21.9%), 효과없음 20건 (8.9%), 기타 98건 (43.8%) 이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토대로 한약재 품질과 보약 원가가 소비자가격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소비자에게 적정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사목적으로 올 6월에서 8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한의원 8개소(강남4, 강북4)와 대학부속한방병원 1개소 등 모두 9개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방법은 소보원 직원이 조사대상 한의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는 받지 않고 50~60대 성인용 십전대보탕을 주문했고 녹용의 산지와 부위를 지정해 넣어 줄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조제한 한약을 약재별로 분류, 녹용에 대한 진위 감정과 한약재가격을 분석하고, 경동시장 등지의 한약재 판매업소(5개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대조군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 한의원의 보약(십전대보탕) 가격은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로 44%의 차이를 보였고, 평균 가격은 37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조사된 보약 한제당 재료비 원가는 5만6천원에서 16만5천원. 이를 단순 비교했을때 소비자가격이 한의원은 2.4배~6.6배, 대학부속한방병원이 11.5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8개소 한의원중 5개소에선 소비자가 지정한 녹용보다 저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의업계 스스로 보약가격을 적정화해 양질의 보약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의원 내부에 대표적 보약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 거래의 투명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 한의계 반응

한의협은 우선 한의원의 한약(보약) 가격을 한약재를 단순 판매하는 도매상 등에서의 원가와 비교, 한방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비(기술료, 인건비등 포함)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인양 발표한 소보원의 행동에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9월22일 오후 발표된 한의협의 「입장표명」은 한마디로 소보원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박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비의 원가 구성요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술료 부분을 간과하고 재료비만을 단순 비교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소보원의 발표는 정부당국에서 한방의료수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국민보전에 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을 왜곡하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 건전한 한방의료 소비문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협은 소보원의 조사방법과 발표내용 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방병협은 이번 실태조사에선 적정소비자가로 산출된 한약가가 아닌 단순한 재료대 대비 소비자가격 만을 비교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한방의료기관이 대단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보도하게 만들었다고 발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보원이 발표에 인용한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의 「한약 적정소비자가 산출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병원종별가산율을 합하면 상품품 재료 기준으로 녹용이 첨가된 십전대보탕 1제당 적정소비자가는 45만원~48만원대로 산출돼 「한방의료기관의 폭리」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의계는 또 소보원이 9개소의 한방의료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5개 한의원의 문제를 발표,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의계는 소보원 발표가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비자가 주문한 것과 다른 녹용을 넣어 한약을 조제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방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러한 한의사에게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앞서 열었던 중앙자율지도위원회가 결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번에 문제가 된 5개 한의원에 대한 명단 확보에 착수했으며 발표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 ● 고 ● 안 ● 내

광고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처녀에게 윈크하는 것과 같다. 당신 자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만 남들은 몰라 주는 것이다.

<S.H. 브리트>

- 이제 광고도 매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양록업계에는 협회에서 엄선된 정보를 담아 발행하는 「한국양록」이 있습니다.

● 광고문의 : (02)969-6600(대표)

사단 한국양록협회